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朴英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研究를 주요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擘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東北亞경제협력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 3460-1114 / FAX : 02) 3460-1144, 1199

URL: <http://www.kiep.go.kr>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朴英鎬

국문요약

리비아는 장기간에 걸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회복 또는 재건의 기회를 상실한 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1980년대 말 발생한 두 건의 민간항공기 폭파사건에 리비아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1992년부터 유엔의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받아왔으며, 더욱이 1996년에는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이 발효되어 리비아의 석유개발을 제한함으로써 1970년대 초반 당시 330만 배럴에 달했던 원유생산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리비아경제는 마이너스 또는 저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재정부족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중단 또는 연기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운영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리비아정부가 항공기 폭파사건 용의자를 전격 인도함으로써 유엔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었고, 이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포기선언 등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도 상당 부분 해제됨으로써 리비아가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리비아는 이미 유럽국가들과의 관계복원에 성공하였으며 미국과도 새로운 협력무드를 적극 모색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금수조치에 포함되었던 석유생산 및 정유 관련 장비의 거래가 재개되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지속함으로써 장기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물론 미국계 오일메이저들의 진출경쟁도 가시화되고 있어 리비아경제가 새로운 탄력을 받고 있다.

리비아는 경제제재로 인해 일부 국책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추진에 많은 차질을 빚었으나 국제유가 상승기조와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석유 및 가스개발, 전력 등 에너지기반시설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 발

주를 재개하고 있어 그동안 한국업체의 진출이 미흡했던 고부가가치 플랜트분야에 대한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리비아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특징은 대부분의 여타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토목, 건축 등에 비해 천연가스·석유 및 석유화학 관련 플랜트부문 발주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플랜트의 해외건설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진출전략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리비아정부는 대수로 공사(1·2단계)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자원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인프라 개발에도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국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시장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단순 토목건설공사의 경우 중국 등 후발업체의 진출 강화로 점차 입지가 약화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플랜트부문의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리비아 건설시장은 한국의 주력시장으로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아프리카지역의 진출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차 례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2장 경제제제 해제와 리비아 경제환경의 변화	9
1. 경제제제 해제와 의의	9
가. 유엔의 경제제제 해제 / 9	
나. 미국의 경제제제 완화 / 14	
2. 미국의 경제제제 완화 배경	20
가. 가다피 정권의 인식 변화 / 20	
나. 미국의 경제제제에 대한 유럽의 부정적 시각 / 22	
다. 미국내 反제제 여론의 조직화: USA Engage / 24	
3. 경제제제 해제에 따른 리비아의 변화	26
가. 유럽과의 외교관계 복원 / 26	
나. 서방 오일메이저의 진출 가시화 / 28	
다. 장기 경기침체로부터의 탈피 / 34	
제3장 한국 건설업체의 진출확대 방안	39
1. 리비아 건설시장 규모와 특징	39
가. 경제제제 해제와 건설수요 / 39	
나. 부문별 개발프로젝트 / 42	
다. 발주 및 수주구조상의 특징 / 45	
2.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확대 방안	49
가. 진출기반 강화 / 50	

나. 합작수주 확대 / 51

다. 플랜트 수주 확대 및 금융조달능력 제고 / 53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55

참고문헌 ————— 57

Executive Summary ————— 59

표 차례

<표 2-1> 유엔의 리비아 경제제재 내용	11
<표 2-2> 유엔의 경제제재에 따른 리비아의 연간 손실액(1992~98년)	12
<표 2-3> 미국의 리비아 경제제재 과정	15
<표 2-4>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리비아의 연간 손실비용(1981~98년)	17
<표 2-5> 리비아산 원유의 수출의존도	24
<표 2-6> 리비아 원유자원의 국제적 비교(2002년 기준)	29
<표 2-7> 경제제재 해제 이후 서방 원유업체들의 리비아 진출동향 사례	33
<표 3-1> 경제개발계획(2001~05년) 중 자원개발 및 교통인프라 투자계획	41
<표 3-2> 플랜트 세부 공종별 발주비중	46
<표 3-3> 리비아의 건당 발주규모 비교	47
<표 3-4> 8대 경쟁국별 시장의존도 비교	49

그림 차례

<그림 2-1> EU와의 무역통합 정도	24
<그림 2-2> 리비아의 원유생산 추이 및 목표치(b/d)	30
<그림 2-3> 리비아의 경제성장 추이	35
<그림 2-4> 경제제재 이후 교역지표 변화	37
<그림 3-1> 유엔의 제재 해제 이후 리비아의 해외발주 추이	40
<그림 3-2> 리비아 건설시장에서의 수주국별 구조	48
<그림 3-3> 리비아의 공종별 발주비중	54

제1장 서론

리비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으로서 한때 석유대국을 꿈꾸며 1970~80년대에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경제개발 붐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발생한 두건의 민간항공기 테러사건에 리비아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조치를 받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리비아는 경제회복 또는 재건의 기회를 상실한 채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당초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는 항공기 운항중단 및 무기판매 금수조치 등과 같이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석유장비 금수조치 및 해외자산 동결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제재내용을 추가시킴으로써 사실상 리비아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켰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동참함으로써 리비아로서는 적지 않은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항공기 운항중단조치에 따른 국제 물류사정 악화는 물론 교역 및 투자 등 대외 경제거래의 위축으로 인해 인플레이가 치솟고 경기침체가 구조화되어 정상적인 경제운용이 불가능했다. 여기에다가 리비아경제를 사실상 지탱하고 있는 석유산업을 봉쇄하기 위해 1996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으로 말미암아 리비아는 유형·무형의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리비아정부가 사건 발생 10여년 만에 항공기 폭파테러범을 유엔측에 인도하기로 태도를 바꿈에 따라 유엔은 1999년 4월부터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잠정 중단시켰으며 이어 2003년 9월에는 이를 공식 해제하였다. 미국 역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계획포기선언 등 가다피 정권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1979년부터 25년간 유지해온 경제봉쇄

조치를 2004년 4월부터 대부분 해제함으로써 리비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서방국과의 관계복원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국제교역 및 투자활동의 재개가 가능해짐으로써 장기간의 국제적 고립 속에서 침체된 리비아경제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는 석유산업으로 그만큼 리비아의 석유이권을 둘러싼 진출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오일메이저간의 진출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석유업체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어 여기에서 파생되는 플랜트 건설수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비아정부는 고유가기조에 따른 막대한 석유자본을 바탕으로 개발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건설수요가 여타 개도국에 비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리비아는 그동안 우리의 중요한 해외건설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 등 후발업체의 진출 강화로 입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선 국제사회의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 배경과 이에 따른 리비아 경제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 리비아에 관한 우리 기업의 1차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는 건설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경제제재 해제와 리비아 경제환경의 변화

1. 경제제재 해제와 의의

가.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

1) 경제제재 내용 및 결정경위

리비아는 국제테러리즘을 조장하는 국가로 지정되어 이미 1970년대 말부터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¹⁾를 받아오던 가운데, 1980년대 말 발생한 두 건의 민간항공기 폭파사건에 리비아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유엔으로부터도 경제제재를 받기 시작하였다. 1988년 12월 21일 영국발 뉴욕행 미 팬암기(Pan Am 103)가 스코틀랜드 로커비(Lockerbie) 상공에서 폭파되어 탑승자 259명, 지역주민 11명 등 총 27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일명 로커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희생자의 절반 가량이 영국에 유학 중이던 미국 유학생들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귀향하던 길에 발생한 사건으로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미국과 영국은 이 사건을 1986년 레이건 정부의 리비아 트리폴리 폭격에 대한 보복테러로 규정하고 2명의 리

1)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통한 제재라는 의미의 경제제제조치는, 수출입을 금지시키는 금수조치(embargo)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수출입 등 교역활동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자본거래, 서비스거래 등 각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재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제재국(sender)이 대상국가(target country)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강제적으로 경제부문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제재국(또는 동맹국)이 중요한 국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재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의 정책 또는 행동을 강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통상적인 무역 및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말한다(Dianne E. Rennack & Robert D. Shuey 1993).

비아 용의자를 영국 법정에 인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1989년 9월에는 프랑스 UTA항공의 DC-10기가 북서아프리카 니제르(Niger) 상공에서 폭발하여 54명의 프랑스인을 포함하여 모두 170명이 사망하는 사건(일명 UTA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정부는 이 사건의 배후조정자로 4명의 리비아인을 기소하였으며 이 중에는 가다피의 경호실장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다피는 서방 측의 사건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리비아의 사건연루를 전면 부정하고 항공기 테러용의자 신병인도를 강력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은 1992년 4월부터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하였으며 이어 1993년 12월에는 기존의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제2차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하였다.

유엔의 제1차 경제제재조치는 항공운항 금지 및 항공부품의 수출입 금지, 무기판매 금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다소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던 반면에, 제2차 경제제재조치에는 리비아정부 및 민간기업의 해외자산 인출동결, 석유장비 금수조치 등이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리비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킴은 물론 리비아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표 2-1 참고).

이러한 제재조치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함으로써 리비아로서는 적지 않은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국제교역 및 투자의 위축은 물론 항공기 운항중단조치에 따른 수입물자 반입의 애로로 물류사정이 악화되면서 인플레이가 치솟고 경제운용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처럼 리비아는 국제테러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1999년부터 유엔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를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제협력의 루트가 봉쇄됨으로써 리비아는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의 길을 걸어야 했다. 1992~99년간 유엔의 제재조치로 인해 1인당 GDP(명목)가 1992년의 7,430달러

에서 1999년에는 5,929달러로 위축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유엔의 리비아 경제제재 내용

제1차 경제제재(1992년 4월) (항공 및 무기금수)	제2차 경제제재(1993년 12월) (리비아의 국제적 고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안보리제재위원회(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의 승인을 받지 못한 모든 항공기의 리비아 이착륙 금지 · 항공기 관련 부품의 수출입 금지 · 리비아 항공사의 해외지점 폐쇄 · 모든 무기류(병기·군사용 운송수단·경찰용 장비 등)의 수출입 금지 · 외국 군사전문가의 군사기술 전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거주 리비아 외교관 감축 및 이들의 활동 제한 · 투자자금·증권·배당이자 등 리비아 정부 및 기업의 해외금융자산 동결(단 1993년 12월 이후 원유·천연가스, 석유제품 및 농산물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제외) · 원유정제 및 원유수송 관련 장비의 수출입 금지(단 리비아에서 필요로 하는 원유채굴장비는 제외)

경제제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경제제재의 효과는 대상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마련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경제제재가 실시되기 전에 제재대상국(target country)의 제재국(sender)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대상국의 소비선호(consumption preference)와 생산구조(production structure)의 유연성이 적을수록 경제제재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표 2-2>는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EE)가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발생한 리비아의 연간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석유장비의 금수조치에 따른 손실액이 가장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제재를 시행하는 제재국의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기 마련인데, 유엔의 제재조치로 인해 리비아에 대해 석유장비의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유럽

국가들의 시장상실효과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표 2-2> 유엔의 경제제재에 따른 리비아의 연간 손실액(1992~98년)

항공기 및 관련부품 금수조치에 따른 교역 감소: 1993~96년간 수입액이 1988~91년대비 50% 감소하는 후생손실(welfare loss) 발생	700만 달러
석유장비 금수조치에 따른 가격상승: 유럽의 대리비아 석유장비 수출가격(1992년 기준)의 5%에 해당하는 후생손실	1억 1,500만 달러
무기 금수조치에 따른 교역 감소: 1988~91년간 연평균 수입액의 10%에 해당하는 후생손실	7천만 달러
항공기운항중단조치에 따른 여행 및 운송비용 상승: 1988~90년간 연평균 여행 및 운송비용의 10%에 해당하는 후생손실	9천만 달러
합 계	2억 8,200만 달러

자료: IIE(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한편 유엔의 경제제재 발동 이후 주변 아랍국들의 비난여론이 격화되는 있는 가운데 리비아에서는 대규모 반서방 시위가 전개되었고 가다피는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에 대해 원유공급을 중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가다피 정권은 유엔의 경제제재 발효 이후 120일마다 개최되는 UN 안보리의 경제제재 검토회의를 앞두고 대서방 유화제스처와 함께 개도국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경제제재의 연장이 결정되면 시위 및 강경발언으로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대응패턴을 보였다.

2) 유엔의 경제제재가 발동된 1992년 당시 유럽국가들의 리비아에 대한 석유장비 수출규모는 이탈리아 10억 달러, 독일 6.1억 달러, 프랑스 3.2억 달러에 달하였다.

2) 경제제재 해제

미국 항공기 폭파테러범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1992년부터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아 오던 리비아가 사건 발생 11년 만에 테러범을 유엔측에 인도하기로 태도를 바꿈으로써 유엔은 7년 동안 부과해온 경제제재조치의 효력을 1999년 4월부로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리비아의 테러용의자 인도는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은 당시 벨슨 만텔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리비아를 방문, 용의자들을 제3국인 네덜란드에서 스코틀랜드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한다는 조건하에 가다피 국가원수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10년 이상 용의자의 신병인도를 거부해오던 리비아가 전격적으로 용의자를 인도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유엔의 경제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손실로 국가경제가 파탄에 직면한 가운데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유가폭락으로 경제위기가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유엔의 경제제재 잠정 중단조치 4년 후인 2003년 9월에는 미국과 프랑스가 기권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 해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함으로써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가 공식 해제되었다.³⁾ 유엔의 해제조치는 2003년 8월 영국 및 미국과의 협상에서 리비아가 유엔의 제재 해제 전제조건인 로커비 사건에 대한 책임인정 및 보상금 지급 합의, 테러지원 포기, 향후 관련 수사의 협조 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3) 유엔의 경제제재는 사실상 1999년 4월 이후 4년간 정지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003년 공식 해제 결정은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1) 경제제재 내용 및 결정경위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미국은 리비아를 국제테러리즘을 조장, 지원하는 국제평화질서의 교란자로 단정하고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일련의 경제제재를 취해 왔다. 1978년 군수장비의 금수조치, 1981년 12월 미국인의 리비아 여행금지 및 리비아내 미국 기술자 철수조치에 이어 1982년 3월에는 리비아산 원유수입 금지⁴⁾ 및 미국상품의 리비아 수출금지 등을 담은 경제제제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1986년에는 추가로 미국내 리비아 자산동결, 리비아와의 모든 상업거래 중단 등의 경제제제조치를 단행함과 동시에 가다피군을 비롯한 주요 군사 및 산업시설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8년 12월 발생한 미 팬암기 폭파사건에 리비아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국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1996년 8월 「이란·리비아 제재법(Iran·Libya Sanction Act: ILSA)」(이하 「ILSA 법」으로 칭함)의 발효를 계기로 정점을 이루었으며 그 이후에도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제제조치를 계속 연장해왔다. 일명 「다마토법」으로도 불리우는 「ILSA 법」은 당초 1996~2001년까지의 한시적인 법률로서 이란과 리비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즉 동 법은 미국정부로 하여금 이란과 리비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일정액(연간 4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 수출은행 및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단절, 미국정부 구매프로젝트에서의 참여 금지, 관련회사 제품의 미국내 수입금지, 수출허가 발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99년 4월 유엔의 경제제재 효력

4) 1982년 미국의 리비아산 원유수입 금지조치로 1981년 70만 배럴에 달했던 미국의 리비아산 원유수입이 1982년에는 15만 배럴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정지 결정을 계기로 미국의 제재조치도 일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으나, 2001년 1월 취임한 부시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추가적으로 5년(법률적용기간)을 더 연장하였으며, 더욱이 연간 투자한도액을 당초 4천만 달러에서 이란과 동일한 수준인 2천만 달러로 규정,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렇듯 1970년대 말 이후 리비아에 대해 취해진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보면, 첫 번째는 수출입의 제한, 두 번째는 모든 상거래의 중단,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거래 중단 및 석유산업 봉쇄 등 3단계로 발전해나가면서 제재의 강도가 더해 갔다(표 2-3 참고).

<표 2-3> 미국의 리비아 경제제재 과정

일자	주요 내용
1978	리비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군수장비 판매 금지
1981. 5	워싱턴 주재 리비아 외교공관 폐쇄
1982. 3	리비아산 원유수입금지. 원유·가스관련 장비 및 기술 수출 금지
1985.11	리비아에서 정제된 석유제품 수입 금지
1986. 1	미국내 리비아 자산동결. 리비아진출 미국원유업체 철수. 레이건 행정부의 리비아 수도(트리폴리) 폭격 리비아에 대한 포괄적 교역 및 금융거래 제한(상품·기술·서비스의 수출입 금지, 리비아에 대한 원조 및 신용공여 금지)
1988.12	미 항공기(Pan Am), 로커비(Lockerbie) 상공에서 폭파(270명 사망)
1989. 9	프랑스 UTA 항공기, 북아프리카의 니제르 상공에서 폭파(171명 사망)
1991.10	미국·영국, 팬암기 폭파혐의로 리비아 정보요원(2명) 기소 프랑스, UTA 폭파혐의로 리비아 정보요원(4명) 기소
1992. 4	UN, 로커비사건 용의자 신병인도요청 거절에 따른 경제제재 발효 (민간항공기 운항금지, 군수장비 판매금지 등)
1993.11	UN, 경제제재조치 강화(리비아 해외자산 동결)
1996. 8	미국,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발효 (리비아 석유산업에 연간 4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 제재)
1999. 4	리비아, 로커비 용의자(2명) UN 측에 신병 인도 UN, 경제제재 잠정 중단
1999. 7	영국·리비아, 외교관계 회복 합의

<표 2-3> 계속

일자	주요 내용
1996. 8	미국,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발효 (리비아 석유산업에 연간 4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 제재)
1999. 4	리비아, 로커비 용의자(2명) UN 측에 신병 인도 UN, 경제제재 잠정 중단
7	영국·리비아, 외교관계 회복 합의
2001. 8	미국 「ILSA 법」 5년 추가 연장 (연간 투자한도액을 기존의 4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제재 강화)
9	가다피, 9·11 자살폭탄테러 비난(미국과의 관계개선 의도)
2003. 8	리비아, 로커비사건 보상금(27억 달러) 지급 합의
9	리비아·프랑스, UTA 폭파사건 잠정 합의 UN,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11년간) 공식 해제
12	가다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계획 포기선언
2004. 1	리비아·프랑스, UTA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추가보상금 지급 합의 미국·영국 핵기술자, 리비아 대량살상무기 관련 원료 및 기술 파기
3	미국, 미국인의 리비아 여행금지 해제 미 의회대표단, 리비아 방문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 리비아 방문
4	미국, 리비아 경제봉쇄 완화
6	리비아 트리폴리에 미 연락사무소 개설(양국간 외교관계 복원)

자료: IIE 및 EIU 등 정리

미국의 경제제재는 수출과 수입 등 상품교역은 물론 재정 및 금융거래의 중단, 해외자산 동결, 석유부문 투자진출 제한 등을 포괄하고 있어 유엔의 제재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하여⁵⁾ 그만큼 리비아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었다. 특히 1996년 8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ILSA 법」은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로 제한함으로써 석유산업 이외는 별다른 산업기반이 없는 리비아로서는 자금자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민들의 생활이 위협받을 정

5)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제재는 없었으며 항공기 운항금지, 항공산업과 관련된 부품 및 서비스 거래 중지, 금융자산 동결, 무기판매 금지 등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여기에 1992년부터 시작된 유엔의 경제제재로 인해 사실상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리비아로서는 경제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을 국내에서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철저한 경제제재를 받아온 것이다. <표 2-4>는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E)가 추정한 것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발생한 리비아의 연간 경제적 손실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1981~98년 동안의 손실액이 1981~85년의 2배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제재조치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리비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다. 하지만 1986년 단행된 교역 및 금융거래 전면 중단, 미국내 리비아 자산동결, 리비아 진출 미국 오일메이저의 철수 등의 제재조치 강화로 석유산업의 손실액이 커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미국이 리비아 석유산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제재조치 이전 미국은 리비아 최대의 원유수출선(약 35%)이었으며, 미국 오일메이저들의 리비아 원유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30% 이상에 달하였다.

<표 2-4>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리비아의 연간 손실비용(1981~98년)

1981~85년 (1단계)	리비아산 원유수입금지	1억 100만 달러
	수출입 제한조치에 따른 양국간 비석유제품의 교역 감소	1천만 달러
	미국인 석유기술자(750명) 철수	600만 달러
	보잉제트기 판매 중단(교역의 10%에 해당하는 후생손실)	6천만 달러
	불태환(nonconvertible currencies)국으로의 교역이전에 따른 구매력 감소	28억 5천만 달러
	1981~85년간 연평균 손실비용	1억 5,100만 달러
1986~98년 (2단계)	금수조치에 따른 미국·리비아간 교역감소	2억 5,300만 달러
	미국내 리비아 자산동결	9,700만 달러
	1986~98년간 연평균 손실비용	3억 5천만 달러
1981~98년간 연평균 손실비용		2억 9,500만 달러

자료: IIE(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2) 경제제재 완화내용 및 해제 전망

미국은 가다피 정권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2004년 3월 미국인의 리비아 방문을 허용한 데 이어, 2004년 4월에는 25년 가까이 유지해온 경제제재조치를 상당 부분 해제하였다. 이번 조치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 등 정상적인 상업 및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6년 8월부터 리비아의 유전개발을 제재해왔던 「ILSA 법」도 철폐됨으로써 미국은 물론 외국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의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1981년 이후 단절된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로 2004년 6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미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었다. 나아가 미국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리비아의 WTO 가입반대를 철회하고, 리비아가 세계경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2001년 12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리비아의 WTO 가입노력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사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시점은 2004년 11월 미국의 대통령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으나, 2003년 12월 전격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계획 포기선언과 핵사찰 허용조치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그 시기가 앞당겨졌다.⁶⁾ 리비아정부는 핵무기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미국, 영국과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비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핵무기 개발계획 포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경제제재 해제를 적극 타진해왔다. 이와 동시에 가다피 정권은 로커비사건 보상문제와 원유개발권(oil concession) 양허문제를 경제제재해제에 연계시킴으로써 미국의 제재해제를 촉구해왔다. 즉 리비아 정부는 이미 미 항공기 폭파사건 희생자(270명)에게 1인당 4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추가협상에서는 2004년 5월까지 제재

6)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도 자발적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한 바 있으나 장기간 반미 강경노선을 표방해왔던 가다피 정권이 핵개발 계획을 전격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며, 미국의 제재완화 결정은 이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다.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유가족 1인당 600만 달러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제재 해제를 앞당길 수 있었다. 또한 리비아 측은 1986년 철수조치로 동결된 미국 오일메이저들의 원유개발권과 관련해서도 제재조치가 지속될 경우 개발권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며 이 기업들로 하여금 미 행정부에 대해 제재 해제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유도하였으며, 실제로 리비아 생산기지를 상실한 이 오일메이저들의 강력한 제재 해제 로비가 뒤따르는 등 경제제재 해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결정은 1980년대 초 이후 극한적 대립으로 단절되어온 양국간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인 동시에 리비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리비아에 대한 무기수출은 물론 국제원조도 계속 금지된다. 또한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미국내 리비아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도 해제되지 않았으며, 양국간 직항노선도 계속 금지된다. 2004년 4월 29일 의회에 제출된 미 국무부의 2003년도 연차보고서 *Patterns of Global Terrorism*는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개발포기 및 국제기구의 핵사찰 허용, 국제테러지원 중단 등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제테러집단과 접촉하고 있다며 당분간 리비아를 테러국 명단(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북한, 쿠바 등 7개국)에서 삭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리비아가 국제테러리즘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1988년 발생한 미 항공기 폭파 사건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문제를 원만히 마무리한다면 이러한 제재 조치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제재 완전 해제 여부는 기본적으로 향후 양국간 관계개선 진전 정도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최근 가다피 정권의 화해무드 조성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감안하면 오는 2004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2.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배경

가. 가다피 정권의 인식 변화

1969년 쿠데타를 통해 왕정을 붕괴시키고 집권한 가다피는 35년간의 1인 독재체제로 입법, 사법, 행정, 군부 등 국가권력은 물론 국민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는 초헌법적 지도자(Supreme Leader)로 군림해오고 있다. 1977년 자신의 정치철학을 집대성한 “Green Book”을 통해 사회주의와 이슬람 이론을 결합한 소위 “제3세계 이론(Third Universe Theory)”이라는 독특한 세계관을 표방해온 가다피 정권은 이러한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배격하고 반제국주의, 아랍민족주의, 이슬람사회주의 건설을 기본 외교노선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가다피 정권의 외교노선은 기본적으로 미국, 유럽 등 서방국과의 긴장관계와 갈등구조를 야기시켜 왔으며 특히 핵개발 의혹과 함께 각종 테러사태 배후에 리비아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긴장관계가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리비아는 미국으로부터 2002년 5월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오명을 넘어 이란, 이라크 등과 함께 “불량국가(rogue state)”, 심지어는 “부랑아국가(pariah nation)”라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다피 정권이 전례 없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10년 이상 신병인도를 거부해왔던 항공기 폭파사건 용의자를 유엔측에 전격 인도한데 이어, 2001년에는 9·11 테러집단을 강력히 비난하는 등 미국에 대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악의 축”이라는 오명과 미국과의 극단적 대립관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2003년 8월에는 미 항공기 폭파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유가족 270명에게 2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며, 2003년 12월에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계획의 포기를 전격 선언하고 국제사찰을

허용하였다.⁷⁾ 또한 리비아내 모든 핵 관련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불시시찰을 허용하는 내용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부속의정서(supplementary protocol)에 서명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다. 더욱이 2004년 3월 의회(GPC) 개원연설에서 가다피는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과의 “새로운 시대(new era)”가 도래하였다고 하며, 핵개발 포기선언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위대한 승리이자 커다란 업적”이라고까지 강조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9.11 테러배후 용의자로 주목받고 있는 알카이다와 아랍테러국의 군사정보를 미국 측에 제공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해왔다. 이러한 가다피 정권의 전향적인 자세가 나타나면서 2004년 3월에는 미 의회 일행이 지난 1981년 양국간 외교관계가 단절된 이후 처음으로 가다피의 의회연설에 참석, 리비아의 국제사회로의 복귀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렇듯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미 유럽국가들과의 외교관계 복원에 성공한 가다피 정권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이끌기 위해 미국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등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는 지난 30년 이상 고집해온 가다피 정권의 반미, 반자본주의 노선으로부터의 후퇴는 물론 사실상 “제3세계 이론”의 퇴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리비아 내부의 극적인 변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다피 정권의 변화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는 한마디로 장기간에 걸친 국제적 고립과 경제봉쇄를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따른 가다피 정권 존립 자체의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핵무기 개발포기 등을 통해 미국과의 화해무드를 조성함으로써 정권유지를 보장받고 이와 동시에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가다피 정권의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리비아경제는 계속된 경제봉쇄로 파탄 직전으로 몰리게 되었으며, 결국 경

7) 리비아의 WMD 포기선언 배경에는 영국은 물론 튀니지, 이집트 등 인근국가들도 핵무기 포기를 적극 설득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재 해제 여부가 리비아 경제회복의 관건이 되었다. 특히 1996년 8월부터 부과된 「ILSA 법」은 유전개발을 제한하여 리비아경제를 극도로 침체시켰으며 가다피는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나.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유럽의 부정적 시각

유럽국가들은 경제제재 시행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미국의 주도를 따라왔지만 미국의 경제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6년 발효된 「ILSA 법」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강력히 반발, 이를 자유무역 저해행위로 WTO에 제소하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동 법이 기업의 자유로운 거래와 주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동 법을 따르는 자국기업들을 역으로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反다마토법 (Anti- Damato Law)」의 입법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1999년 4월 유엔의 제재조치 중단결정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01년 8월 오히려 제재범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리비아 석유진출문제를 놓고 일정 부분 이해대립을 빚어왔다. 예컨대 2003년 5월에는 독일의 오일메이저인 RWE사가 리비아 원유·가스전 개발에 합의한 문제를 놓고 미국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⁸⁾

미국의 경제제재 입장에 충실히 동조해왔던 영국도 미국의 「ILSA 법」에 대해서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더욱이 영국은 1999년 7월 리비아와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리비아에 대한 강경입장에서 후퇴하였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의 유

8) 미 행정부는 ILSA 법의 위반행위로 독일회사를 제재하겠다고 경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독일 측은 5년에 걸쳐 총 5,600만 달러가 소요되는 투자프로젝트로 연간 투자액은 1,120만 달러이므로, 「ILSA 법」의 제재요건(연간 2천만 달러 투자시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력 반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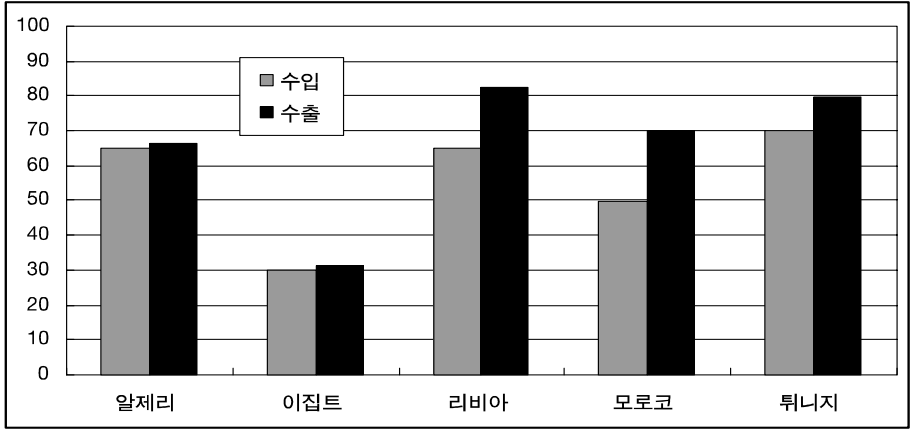
럽국가도 리비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제재해제를 적극 지지해왔으며, 리비아와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있던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역시 국제사회의 여론을 등에 업고 미 행정부에 대해 경제제재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미국의 「ILSA 법」 해제 결정(2004년 4월)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부정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으며, 더욱이 미국 자국기업들의 강력한 해제요구도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은 무엇보다도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 의존적 경제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리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의 자국의 전통적인 영향력과 상업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과 리비아간의 상호 경제적 의존성은 <그림 2-1>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리비아는 교역의 60~80%를 EU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투자 및 기술 등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아 유럽으로서는 리비아와 어느 정도 우호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유럽국가들이 1972년 이후 범지중해 정책(Global Mediterranean Policy)을 표방하고 리비아를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의 정식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려는 하는 것도 바로 유럽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또 다른 실질적인 이유는 리비아 석유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럽기업들은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리비아의 시장잠재력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제재조치로 인해 장기간 자유로운 진출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불만이 표출되었다. 유럽국가들은 양질의 리비아산 원유를 저렴한 수송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어 리비아산 원유를 선호하고 있는데 <표 2-5>에서 보듯이 리비아 원유의 90% 정도가 이탈리아, 독일 등의 유럽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EU와의 무역통합 정도

(단위: %)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3)

<표 2-5> 리비아산 원유의 수출의존도

(단위: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이탈리아	46.5	44.3	46.5	41.5	52.5
독 일	22.8	25.2	23.3	20.5	20.0
스페인	11.3	12.9	14.0	14.7	14.0
프랑스	4.3	4.6	4.8	6.1	5.0

주: 경제제재 직전인 1981년 당시 미국의 리비아 원유수입은 70만 배럴에 달했으나 1982년 미국의 원유수입 중단조치로 인해 이후 원유수입이 중단되었다.

자료: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2002).

다. 미국내 반제재 여론의 조직화: USA Engage

미국의 「ILSA 법」에 따른 리비아 경제제제가 장기화되자 미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회의론을 주도적으로 제

기해온 단체는 산유국과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석유기업들로서 이 기업들은 1997년 Conoco, Exxon 등 다국적 오일메이저들을 중심으로 “USA Engage”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제재에 반대하는 여론형성을 주도해나갔다. 현재 이 조직에 가입한 단체는 67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자본력이 뒷받침된 이들의 활동으로 최근에 오면서는 상당수의 학자와 의원,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까지 적극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제재법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법안 제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反경제제재 여론의 논점은 미국 단독의 제재조치는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리비아 진출을 사실상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리비아정부를 약화시키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기업들의 진출기회만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⁹⁾ 특히 1999년 유엔의 제재중단조치 이후 유럽 오일메이저들이 리비아의 대규모 유전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미국 석유업계는 유럽기업들에 개발이점을 선점당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더욱이 리비아가 1980년대 진출 당시 소유했던 미국 석유업체들의 리비아 내 석유개발권 만료시한을 수시로 통보해오자 이 업체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며 미 행정부에 대해 로비를 강화해왔다. 사실 그동안 「ILSA 법」을 위반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적 제재조치가 한번도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법적 효력이 크게 상실되어왔다. 이제까지 한 차례도 동법이 적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제재 해제의 필요성에 큰 힘을 실어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미국 내부적으로도 자국의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개발잠재력이 높은 리비아의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석유업

9) 미국 국제경제연구소(PIE)는 미국 단독의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미국기업들은 150억~200억 달러의 시장상실효과를 입었으며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되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계의 불만이 계속 증폭됨으로써 미 행정부의 입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리비아의 변화

가. 유럽과의 외교관계 복원

리비아는 각종 테러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유럽 각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아왔으며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등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유엔의 경제제재중단조치(1999년 4월) 이후 유럽국가들의 외교관계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1984년 4월 런던 주재 리비아 대사관에서 발사된 총탄에 의해 영국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무기 금수조치, 수출신용보증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왔던 영국은 리비아 측이 경찰관 총격사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합의를 제시해오며 따라 1999년 7월 외교관계를 복원하였다. 더욱이 2004년 3월에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1951년 리비아 독립 이후 총리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리비아를 전격 방문, 가다피 국가원수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테러리즘 근절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로서의 동반자적 협력을 확인하였다. 각종 국제테러를 조장, 지원하는 “불량국가”로 명명되었던 리비아가 줄지에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국으로 변신한 셈이다.

이에 앞서 2004년 1월에는 리비아 외무장관이 1969년 가다피 정권 출범 이후 각료로는 처음으로 영국을 공식 방문하는 등 대량살상무기 포기선언(2003년 12월) 이후 서방국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프랑스는 1980년 리비아 주재 프랑스대사관의 전소사건, 그리고 1989년 9월 발생한 프랑스 항공기 폭파사건(일명 “UTA 사건”) 등으로 유엔의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해왔으나, 유엔의 제재 중단결정 이후 리비아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오고 있다. 그동안 주요 외교쟁점이던 UTA 사건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2004년 1월 리비아 측이 UTA 사건희생자 유가족에게 추가적으로 약 1억 7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보상금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¹⁰⁾ 또한 최근 프랑스 외무장관의 리비아 방문에 이어 시라크(Chirac) 프랑스 대통령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어 양국간 협력관계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역시 1986년 4월 발생한 베를린 나이트클럽 폭탄테러사건의 배후로 리비아를 지목하고 경제제제조치를 취해왔으나 1999년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하였으며, 베를린 테러사건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문제가 해결되면 무기 수출금지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국들도 유엔의 해제조치와 리비아의 핵개발 포기선언 이후 가다피 국가원수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리비아와의 경제협력 및 외교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4년 2월에는 가다피 국가원수가 유럽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15년 만에 유럽을 방문, 리비아가 세계평화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협력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로마노 프로디(Romano Prodi) 유럽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리비아를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일명 “바르셀로나 협력체(Barcelona Process)”)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리비아가 정식 회원국으로 적극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10) 리비아는 2003년 9월 UTA 사건 보상금 지급에 합의하고 이미 희생자 유가족에게 3,4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프랑스정부와 희생자 유가족 대표는 미 항공기 폭파사건의 보상액(27억 달러)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지급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만일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엔의 제재 해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고 강조하였다. 바르셀로나 협력체는 유럽과 지중해국가간 경제협력을 위해 1995년 창설된 지역협력체이지만 리비아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정식 회원국이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이 같은 가다피 정권의 탈고립화 정책은 무엇보다도 서방경제국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선진서방국의 자본유치 없이는 국가경제의 현대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권유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서방 오일메이저의 진출 가시화

1) 리비아 석유산업의 잠재력

리비아는 엄청난 원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원유부국으로서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석유산업은 GDP의 30%, 재정수입의 90%, 수출소득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리비아 국가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원유매장량은 360억 배럴에 달하고 있으며, 10억 배럴 이상에 달하는 초대형 유전만 해도 12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욱이 국토의 70% 정도가 아직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원유매장량은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2004년 4월) 리비아 에너지장관은 리비아의 실질 원유매장량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보다 3배 정도가 많은 1천억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리비아의 원유매장량은 쿠웨이트나 UAE와 비슷한 수준으로 무려 OPEC 원유매장량의 10%에 육박하게 된다(표 2-6 참고).

<표 2-6> 리비아 원유자원의 국제적 비교(200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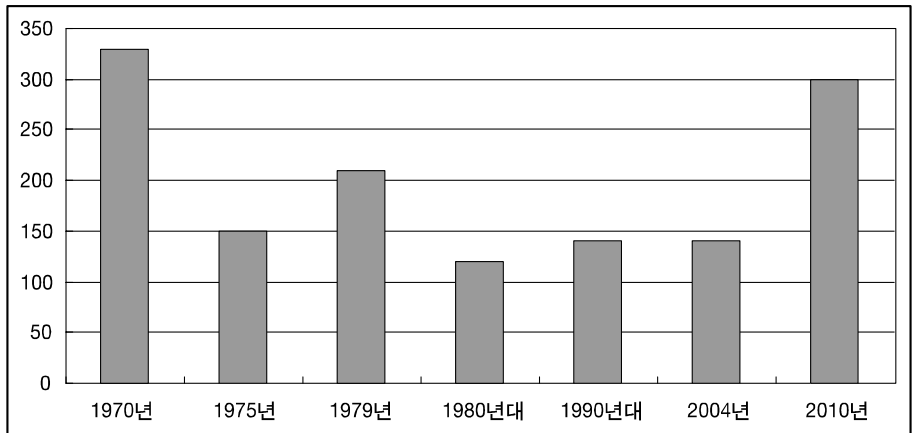
	매 장 량		생 산	
	억 배럴	비중	천 배럴/日	비중
리비아	360	4.2	1,200	5.0
나이지리아	315	3.7	1,801	7.5
알제리	113	1.3	735	3.0
인도네시아	47	0.5	1,125	4.7
이란	991	11.7	3,248	13.5
이라크	1,150	13.6	2,126	8.9
쿠웨이트	965	11.4	1,746	7.3
카타르	152	1.8	569	2.4
사우디아라비아	2,628	31.0	7,093	29.6
UAE	978	11.5	1,900	7.9
베네수엘라	778	9.2	2,432	10.1
OPEC	8,478		23,977	100.0

자료: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2002).

그동안에는 경제제재에 따른 석유장비 수입중단 및 투자부진으로 인해 잠재적 생산능력에 비해 실제생산량이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석유산업 현대화 및 유전개발에 필수적인 장비 및 기술도입은 물론 외국 오일메이저들의 진출 가속화와 리비아의 석유개발의지가 결부되면서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ILSA 법」으로 인해 유전개발이 지체되고 원유생산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으나 2004년 4월 동 법이 철폐됨으로써 원유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에너지전문가들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현재 1970년대 초반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산유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경

우에 따라서는 머지않아 1970년의 절정기 수준으로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비아는 외자유치를 통해 2004년 현재 하루 140만 배럴에 불과한 원유생산능력을 향후 5년 후인 2010년까지는 1970년 수준인 300만 배럴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이란의 산유량(2002년 기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제재 해제 이후 유럽 및 미국 등 서방국은 물론 중국, 인도, 터키 등 아시아 석유 기업들까지도 리비아 진출에 경쟁적으로 가세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그림 2-2> 리비아의 원유생산 추이 및 목표치(b/d)



자료: EIU 등

이와 같이 원유자원에 관한 한 리비아는 무궁무진한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비아 원유는 저유황¹¹⁾의 경질유로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유전이 육상에 위치해 있어 생

11) 유황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황의 양이 적으면 그만큼 좋은 원유로 평가되며 또한 가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적게 발생한다.

산비용이 저렴(배럴당 채굴단가가 대략 2~5달러선이며 일부 유전의 경우 1달러 정도에 불과함)하고 유럽시장과 인접해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 외국 기업으로부터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원유전문기관인 **Robertson Research**사에 의하면 리비아가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그리고 중동지역에서는 가장 개발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외국 오일메이저의 진출동향

경제제재 해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는 당연히 원유 및 가스부문이며, 그만큼 리비아의 석유이권 획득을 둘러싼 진출 경쟁도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업체들은 최근 고위인사 방문외교 및 경제협력 논의 등을 통해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과 투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86년 미국 원유업체들의 철수조치를 계기로 리비아 진출을 본격화해왔던 유럽 석유업체들은 미국의 제재 해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업체들의 진출이 가시화되자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개발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등 에너지 개발이권 선점을 위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리비아와 경제·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유럽 각국들은 유엔의 제재중단조치 이후 정상 또는 장관이 잇달아 리비아를 방문하는 등 외교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면서 경제진출을 확대해오고 있다. 미국과 함께 리비아 경제제재를 주도해온 영국도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하게 리비아와의 통상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수차례에 걸쳐 투자사절단과 의회대표단을 리비아에 파견하는 등 진출기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적인 오일 다국적기업인 **Royal Dutch/Shell**사는 2004년 3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리비아 방문시 리비아 석유공사(NOC) 측과 가스전 개발프로젝트에 2억 달러(향후 총투자규모는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시장선점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 리비아의 식민중주국이자 최대 교역파트너로서 긴밀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이탈리아는 최근 양국간 협력증진조약을 체결하고 일부 외채를 탕감해주는 등 경제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탈리아의 다국적 오일메이저인 ENI사는 54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리비아 서부지역 가스개발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2004년 말경에는 생산을 개시하게 된다. 동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여기에서 생산되는 가스 생산량은 연간 100억 m^3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억 m^3 은 지중해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의 유럽국가들도 리비아 석유자원의 개발잠재력에 주목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리비아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프랑스의 Total사를 비롯하여 스페인(YPF), 독일(Wintershall), 캐나다(Petro Canada) 등 다국적 오일메이저들의 진출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표 2-7 참고).

이처럼 유럽기업들이 경제제재 해제 이후 공세적으로 리비아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자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리비아 석유산업 진출이 봉쇄되었던 미국 오일메이저들도 2004년 4월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진출 재개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어 유럽제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1986년까지 리비아에서 활동했다가 자국의 경제제재 발동으로 리비아내 자산을 포기한 채 철수했던 Oasis그룹(Conoco, Marathon, Amerada Hess 컨소시엄)과 Occidental Petroleum사는 이미 자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앞두고 리비아와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유전개발 복귀방침의사를 적극 타진해왔다. 이외에도 Pioneer Resource사 등과 같은 미국의 중견 원유개발업체들도 리비아 유전개발 참여 가능성을 적극 시사하는 등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원유개발 장비업체는 물론 에너지개발 자문법률회사의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중국, 인도, 터키 등 아시아 석유개발업

체들도 리비아 원유 및 가스전 개발에 적극 가세하고 있어 리비아 석유자원 선점을 위한 국제경쟁이 가열되고 있다.¹²⁾

<표 2-7> 경제제재 해제 이후 서방 원유업체들의 리비아 진출동향 사례

<유럽>

-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오일기업인 “Royal Dutch/Shell”은 2004년 3월 리비아 석유공사(NOC) 측과 석유 및 가스개발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5~7년간 지질조사 등에 2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장기적으로는 10억 달러까지 투자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 발표.
- 호주 “Woodside Energy”, 스페인 “Repsol-YPF”, 그리스 “Hellenic”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유엔의 제재 해제 이후 처음으로 리비아의 Sirte와 Murzuk 유전·가스전 개발에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 서명(2003. 12).
- 이탈리아의 “ENI”는 리비아석유공사(NOC)와 합작법인(Agip Gas)을 설립, 약 54억 달러 투자 규모의 리비아 서부지역(west libya) 가스전 개발프로젝트에 참여(ENI사는 이미 Elephant 유전개발에도 참여하여 현재 1일 1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15만 배럴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 스페인 “Repsol-YPF”, 오스트리아 “OMV” 컨소시엄은 6개 유전·가스전 개발에 9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NOC와 합의(2003. 7).
- 독일의 “RWE-Dea”는 유전지대 지질조사 및 10개 유정개발에 5,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2003. 7)
- 이 밖에 프랑스 “Total”, 독일 “Wintershall”, 노르웨이 “Statoil”, 캐나다 “Petro Canada” 등의 오일메이저들도 리비아 석유탐사 및 유전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12) 한국의 경우 현재 석유개발공사, 대우, 현대 등 5개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33.3%의 지분을 출자하여 매장량 10억 배럴 규모의 초대형 Elephant 유전(NC-174 광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는 유엔의 제재 해제를 계기로 리비아 유전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이미 유전개발권 및 판매권을 획득한 NC-174 광구 이외에 신규 광구에 대한 개발권 확보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인도의 리비아 진출도 최근 들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 예컨대 2002년 8월에는 OVL사가 합작지분(49%)을 통해 Sirte 및 Ghadames 유전개발에 참여기로 합의 서명한 바 있다.

<표 2-7> 계속

<미국>

- 1986년 자국의 경제제재조치 발동으로 철수했던 “Oasis”그룹(Conoco · Marathon · Amerada Hess 컨소시엄)과 “Occidental Petroleum”은 리비아 유전개발 복귀 방침을 발표하고 조만간 기술조사팀을 파견할 계획.
 - “Oasis”그룹은 초대형 Waha 유전 개발에 진출, 1970년 당시 하루 9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였는데, 이는 당시 리비아 총산유량(300만 배럴)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임.
- ExxonMobil(세계 최대 원유업체)와 Chevron Texaco(미국 제2의 원유업체) 역시 기술조사팀 파견계획을 밝히는 등 미국의 제재조치 해제 이후 리비아 석유진출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이밖에 「Pioneer Natural Resources」 등 중견 원유업체들도 리비아 유전개발 참여 가능성을 적극 시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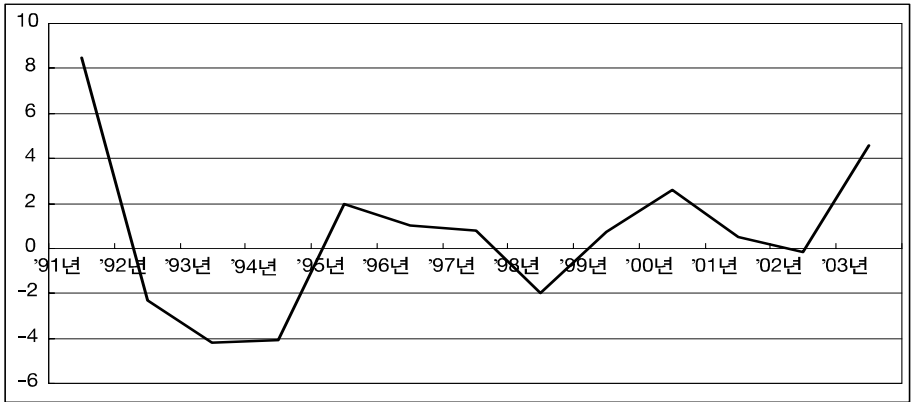
자료: EIU 및 Oxford Analytica 등 각종 자료 정리.

다. 장기 경기침체로부터의 탈피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사막지대인 리비아는 1951년 독립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에 속해 있었으나 1950년대 중반 석유개발이 추진되면서 세계 주요 산유국으로 부상, 1980년대까지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경제 개발에 주력해왔으며, 이에 따라 1950년대 초반 당시 100달러도 미치지 못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81년에는 무려 8,500달러에는 달하는 등 경제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1982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원유수입 금지 등의 경제제재를 받아오고 있던 가운데, 1992년부터는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되었고, 더욱이 1996년부터는 미국의 「ILSA 법」이 발동되면서 리비아는 사실상 국제적으로 고립된 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991년에는 걸프전(1990년 8월~1991년 2월)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석유수출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8%대의 높은 경제성

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2년 시작된 유엔의 경제제재로 말미암아 국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데다가 국제유가마저 하락세로 돌아서자 1992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들었다. 1995년에는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세와 물자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세(2.0%)로 돌아서기도 하였으나, 1997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1998년에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는 계속되었다(그림 2-3 참고).

<그림 2-3> 리비아의 경제성장 추이



자료: EIU 각년호

더욱이 리비아는 경제제재 이후 재정부족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연기 또는 중단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하고, 항공기 운항중단조치에 따른 물류차질 발생 등으로 고인플레이가 장기화되었다. 1990년대 초 10%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경제제재에 따른 국제거래로부터의 고립과 수입코스트의 상승,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외환사정의 악화 등으로 1993~94년에는 무려 40~50%대에 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석유부문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90% 이상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제재에 따른 석유생산

위축은 정부재정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리비아정부는 재정 수입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불가피하게 재정지출 억제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경제침체로 1993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5% 이상에 달하기도 하였다. 리비아정부는 각종 개발사업 동결, 공무원 급여 동결,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보조금 축소 등 초긴축 재정정책도 동원해보았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실업자 양산, 국영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 고인플레이 등의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더욱이 1998년 국제유가 폭락은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재정적자가 GDP 대비 8.5%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조치로 말미암아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리비아가 유엔의 경제제재 중단조치 이후 미약하나마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는 유엔의 경제제재 중단조치와 함께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1.0%의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선 데 이어 2000년에는 2.6%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2001년에는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그리고 2002년에는 이라크전쟁 등의 요인으로 정체상태를 보였으나 2003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미국이 2004년 4월부터 경제제재를 대부분 해제함으로써 유엔의 제재 해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리비아경제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효과는 2005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ILSA 법」 철폐 이후 미국 오일메이저들의 진출 재개와 이에 따른 원유생산 및 수출확대에 힘입어 2005년에는 4.0%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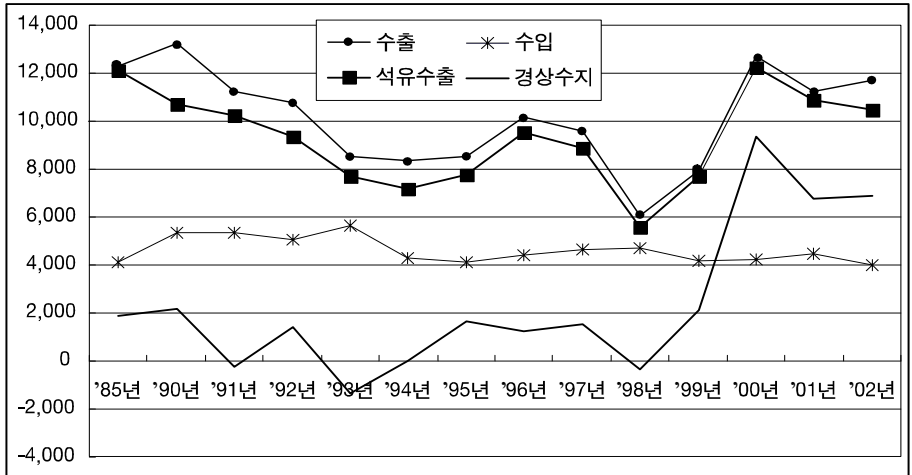
인플레이도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1999년 이후 2.0%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수입규제 완화로 수입이 확대되면서 물품부족현상이 크게 해소되고 있다. 그동안 만

성적인 적자상태를 보여왔던 재정수지도 1999년 이후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원유수출수입의 호조에 힘입어 GDP 대비 13.5%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경제제재 해제와 고유가로 인한 경제지표상의 변화는 <그림 2-4>에서 보듯이 대외부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8년 60억 달러에 그쳤던 수출규모가 유엔의 제재 중단 이후 원유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3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43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무역흑자도 1998년의 4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8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다. 경상수지 역시 수출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폭의 확대로 1999년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밖에도 1995년 8만 5천 명에 불과했던 관광객 수가 유엔의 경제제재 중단조치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20만 명에 이르렀으며, 외환보유고도 1999년 73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3배 정도

<그림 2-4> 경제제재 이후 교역지표 변화

(단위: 100만 달러)



자료: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2002).

증가한 198억 달러에 달하는 등 최근 들어 리비아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다만 중앙집권적·폐쇄적 경제운영체제와 리비아 특유의 정치체제하에서 경제제재 해제만으로는 경제개혁과 성장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리비아는 여타 중동 산유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경제성장이 좌우되는 특성을 띠고 있어 향후 국제유가 향배와 OPEC의 생산쿼터 조정 여부 등이 경제회복의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3장 한국 건설업체의 진출확대 방안

1. 리비아 건설시장 규모와 특징

가.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수요

리비아 건설시장은 장기간에 걸친 경제제재로 인해 외국업체들의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더욱이 대수로 건설공사(GMR) 등과 같은 국책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상당수의 외국건설업체가 대거 철수하였다. 그 결과 산업시설은 물론 도로, 통신, 항만 등 제반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국내 산업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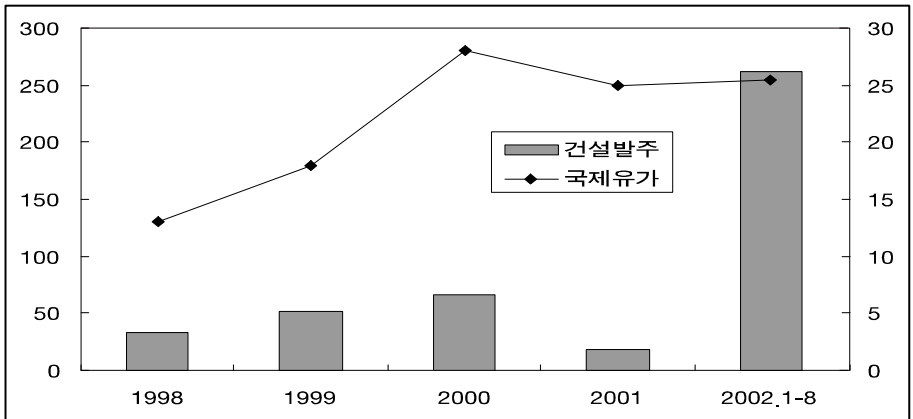
그런데 1999년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와 동시에 국제유가도 크게 오르면서 그동안 경제봉쇄와 투자재원 부족으로 중단 또는 지연되었던 각종 개발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어 막대한 건설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그림 3-1>에는 세계적인 건설 전문잡지인 MEED지의 통계에 따른 최근 5년간(1998년~2002년 8월) 리비아의 해외 발주규모와 그 추이가 국제유가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2002년(1~8월)에는 발주규모가 1998년의 10배를 훨씬 상회하기도 하였다. 건설발주규모는 국제유가 향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큰 폭의 유가하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리비아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활황이 예상되고 있다. 건설시장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석유수출액 규모, 경제성장, 재정지출 규모, 개발계획 등을 들 수 있겠으나, 특히 석유수출소득은 건설공사 대금지급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어 역시 석유수출액이 리비아의 건설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비아정부는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배증한다는 목표로 1,2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도로·항만·공항 등 기초 인프라는 물론 전력·통신 등 기간산업 건설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물론 개도국에 있어 일반적인 투자단계상 도로·항만·통신 등과 같은 물리적 기반시설(physical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비아는 경제제재 해제 이후 서방 오일메이저들의 진출 가속화에 따른 원유생산 확대와 고유가 기조에 따른 석유자본수입을 바탕으로 개발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건설수요가 여타 개도국에 비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리비아 석유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왔던 미국의 「ILSA 법」도 해제되어 향후 석유 및 가스부문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건설수요의 빠른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림 3-1> 유엔의 제재 해제 이후 리비아의 해외발주 추이

(단위: 천만 달러, 달러/배럴)



주: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자료: MEED지 및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petronet) 데이터베이스

이를 반영하듯 리비아의 개발전략과 공공투자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교통 인프라, 전력사업, 대수로 및 관개시설, 에너지개발부문이 개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리비아정부는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5개년 개발계획(2001~05)에 총 3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의 60~70%는 정부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해외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상기 개발계획은 연 6.2%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개발, 인프라 및 산업시설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별 중점 투자계획을 보면 <표 3-1>과 같다. 석유자원 개발의 경우 외자

<표 3-1> 경제개발계획(2001~05년) 중 자원개발 및 교통인프라 투자계획

부문별	주요 부문	투자계획 규모 (억 달러)
석유·가스	소 계	145
	유전탐사	60
	정유설비 확충	30
	원유처리 및 수송설비 확충	10
	석유화학공장 설비확충	5
	가스전개발	40
전력 및 담수화 플랜트	소 계	71
	발전소(7개) 건설	42
	전력망 확충	19
	담수화플랜트(11개) 건설·시설확충	10
대수로·농수로	소 계	78
	대수로 3단계공사(4개 구간)	43
	TAZ/TAG 송수로	20
	농수로(6개 농장)	5
교통 인프라	소 계	108
	철도	100
	공항	6.5 1.5
	항만	-

자료: 주리비아 한국대사관(2003. 1.), 『리비아경제 및 건설프로젝트 동향』.

유치를 통해 145억 달러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동서(Tabrak~Zewra)간 철도 건설(2,170km) 등에 10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10여 개의 관광단지 개발, 발전소 건설, 사하라사막 중단고속도로 건설(1,400km), 항구 및 공항 확충 등에도 대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중동 산유국과 마찬가지로 원유부문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75% 이상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은 운용은 필연적으로 국제유가 추이라는 외부요소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 건설수요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나. 부문별 개발프로젝트

1) 에너지 개발

경제제재 해제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서방국과의 에너지 개발협력을 통해 석유·가스, 전력 등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재개되고 있는데 유전탐사(60억 달러)·원유 및 가스전 개발(40억 달러)·정유설비 확충(30억 달러)·석유화학플랜트 확충(5억 달러) 등의 개발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석유개발부문의 경우 2000년 이후 총 140여 개의 광구를 탐사가능지역으로 설정하여 탐사를 추진 중인데 2002년부터 개발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제재기간 중에는 외화획득이 급선무였던 관계로 원유개발 등 주로 상류부문(Upstream)에만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하류부문(Downstream)이 크게 낙후되었으나, 정유시설 및 석유화학공장 확충 등 하류부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외국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새로운 가스개발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미개발상태로 남아 있는 가스전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생산, 처리 및 수송시설 확충에 투자우선순위를

두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세계 석유메이저와의 합작으로 대형 신규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54억 달러의 대규모 공사인 서부사막(West Libya Desert)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대수로 후속공사(3·4단계), 북아프리카 철도망 건설사업과 함께 향후 10년간 리비아 건설시장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리비아~시실리간 대형 가스파이프라인 공사가 진행 중이며 리비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리비아의 전력생산은 1970년대 150MW 수준에서 2000년에는 2,650MW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리비아정부는 소비수준 향상과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 10년간 전력수요가 6천M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2010년까지 6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력 생산량 및 송·배전시설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집트 및 튀니지와 3개국 공동으로 지중해 전력망 구축을 위해 400KV 송전망 연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2) 대수로 후속공사(3·4단계)

1984년 가다피 정부는 중동 최대 규모의 수자원프로젝트인 대수로공사(Great Man-made River)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리비아 동남부지역에 매장된 대량의 지하수자원을 취수하여 이를 북부 도시지역으로 공급하고, 30만~50만ha에 이르는 농경지에 대한 관개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된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리비아 건설산업을 주도해왔다. 동 프로젝트 1·2단계 공사(약 150억 달러 규모)는 한국기업(동아건설)에 발주되어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대수로 후속프로젝트인 3·4단계 건설공사가 재원부족 등의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5년 이상 지연되어왔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국제입찰이 진행 중에 있다. 공사규모가 5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3단계 공사는 북동지역의 Adjabiya~Tobruq간, 그리고 Fezzan 및 Sebha지역을 서부

해안으로 각각 연결하는 전장 1천km 이상의 대규모 공사로서 일일 500만~600만^m의 송수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리비아는 물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담수화시설을 확충하고 댐 및 송수관 건설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 확대를 위한 수자원 개발프로젝트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나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특성상 향후 국제유가 추이 및 외자유치 성공 여부 등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교통인프라

리비아정부는 1999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그동안 투자재원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교통인프라 개발사업을 활발히 재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항만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100억 달러 규모의 동서간 2,178km와 남북간 992km의 철도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리비아~이집트~튀니지를 연결하는 북아프리카 철도망과 나아가 사하라이남 철도망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2002년 10월에는 리비아철도위원회(Railway Executive Board)의 주최로 “아프리카 철도망 구축”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이를 위한 12개항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아프리카 철도망 건설프로젝트는 튀니지에서 리비아를 거쳐 이집트까지 동서로 연결하고, 나아가 이를 사하라이남까지 남북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공사내역을 보면 철로 3,170km 건설, 역사 96개소 건설, 교량 554개 건설, 기관차 244대 및 차량 8,642대 구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설계 및 기술감리(4억 달러)·토목공사(16억 달러)·도로 및 교량건설(19억 달러)·역사 등 빌딩공사(12억 달러)·철로건설(23억 달러)·선로 및 통신시스템(11억 달러)·철도차량 구입(15억 달러) 등 2010년까지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대수로공사 이후 리

비아 최대의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는 동 철도건설프로젝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사업참여를 위한 국내업체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다. 발주 및 수주구조상의 특징

1) 발주구조상의 주요 특징

(가) 공종별 발주구조

리비아의 공종별 해외 발주비중을 보면 이미 예견된 바와 같이 다른 산유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플랜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플랜트 관련 건설수요가 수반되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원유 및 가스전 개발 플랜트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유전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 발전 및 담수시설 프로젝트의 수요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발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1998~2002년)을 기준으로 보면 역시 플랜트부문이 65% 이상으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토목부문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리비아가 세계 주요 산유국이라는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플랜트 건설은 자국업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대부분 해외발주에 의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플랜트부문 가운데에서는 원유·가스 개발 및 생산 관련 프로젝트의 발주비중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만큼 석유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플랜트 건설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리비아 진출전략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2> 플랜트 세부 공종별 발주비중

(단위: %)

	원유·가스	석유화학	공장설비	발전·담수	해상플랜트
리비아	71.2	0.0	0.0	1.2	28.0
이집트	37.0	21.1	34.0	7.9	0.0
알제리	80.8	0.0	3.3	9.4	6.5
모로코	0.0	0.0	66.3	33.8	0.0

주: 1998~2002년 집계액 기준.

자료: MEED지 각호.

(나) 건당 발주규모

해외로 발주되는 건설프로젝트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건당 발주규모를 보면 연도별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리비아가 인근 북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5년간(1998~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리비아의 건당 평균 발주액은 약 1억 9천만 달러인 반면에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는 리비아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3-3 참고).

이처럼 리비아의 건당 발주규모가 큰 것은 대규모의 대수로 건설공사와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개발 관련 대형 플랜트 건설프로젝트 발주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산유국인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는 석유 관련 플랜트 건설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일 경우라도 이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모로코의 건당 해외발주액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산유국인 리비아와는 달리 대규모 건설수요를 수반하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보다는 전력송전망 공사, 발전시설 공사 등 소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발주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3> 리비아의 건당 발주규모 비교

(단위: 100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5년간 평균
이집트	87.6	76.2	87.2	75.6	86.6	82.7
리비아	111.0	172.0	132.0	47.8	326.6	187.5
알제리	65.0	70.3	362.9	112.5	195.7	175.3
튀니지	50.4	72.0	20.6	31.8	454.0	69.2
모로코	32.4	28.6	39.8	56.4	3.8	35.3

자료: MEED지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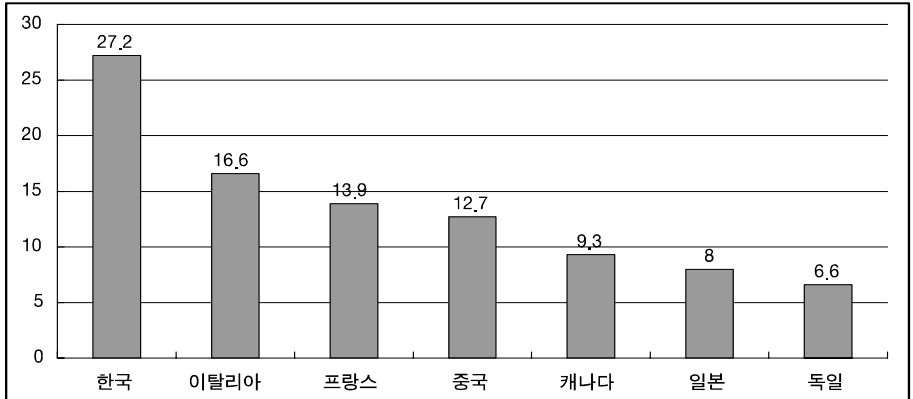
2) 수주구조상의 주요 특징

리비아 건설시장에 관한 한 최대 진출국은 한국이며 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들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리비아 건설시장은 한국의 주력시장으로 각광받아왔으며 실제로 여러 한국업체가 진출하여 그동안 250억 달러에 달하는 건설수주를 달성하였다. 특히 단일공사로는 세계 최대규모(약 150억 달러)인 대수로공사의 수주로 <그림 3-1>에서 보듯이 최대의 수주국 위치에 있다. 1992~99년에는 유엔의 경제제재 및 유가하락에 따른 일부 공사대금의 지불연체, 건설계약상 수주기업의 의무강화 등으로 제약요인이 적지 않았으나,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기조에 따른 공사발주가 확대되고 있어 한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시장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8대 수주경쟁국의 리비아 시장의존도, 즉 북아프리카 6개국 수주액(이집트·알제리·리비아·수단·튀니지·모로코 6개국이며 이들의 합계는 100%) 가운데 리비아에서의 수주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표 3-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서술하면, 한국과 중국은 모두 리비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국이 리비아 건설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중국은 최근

<그림 3-2> 리비아 건설시장에서의 수주국별 구조

(단위: %)



주: 1998~2002년 합계기준.

자료: MEED지 각호.

3년 동안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및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토목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건설공사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며 시장공략을 적극화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¹³⁾ 이 같은 사실은 MEED지 통계상의 한계성¹⁴⁾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참고로 유럽과 미

13) 리비아 건설시장에서 한국과 유럽이 수주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중국 건설업체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예컨대 ZTE사는 최근 리비아의 46개 도시를 연결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공사(4,200만 달러)를 수주하였으며, Sinohydro사는 대수로 4단계 공사(GMR) 수주가 유력시되고 있다. 철도 건설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한 건설회사는 Sirte~Sebha간 철도망 건설공사에 입찰을 계획하고 있다. 인프라부문뿐만 아니라 에너지 플랜트부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CEPCC사는 초대형 공사인 리비아 서부(west libya) 가스프로젝트에 참여하여 520km에 달하는 가스파이프라인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중국 건설업체가 리비아 에너지 플랜트부문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 MEED지는 리비아를 포함한 중동 및 일부 아프리카국가의 건설 관련 통계를 수록하는 전문지로 정평이 나 있으나 통계상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MEED지에 공표된 계약실적 가운데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실제로 이루어진 모든 계약금액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로 발주된 금액보다 MEED지에 집계된 금액이 적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MEED지에 공표된 계약실적은 계약 당시의 것이므로 이후에 계약금액이 변경되거나 계약 자체가 취소될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없다.

국은 이집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반면에, 일본은 알제리에 대한 시장의존도 절반에 달하고 있어 일본의 알제리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리비아의 자국화 비율(자국이 발주한 공사를 자국이 단독 혹은 합작형태로 수주한 비율)이 여타 중동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리비아 건설시장의 개방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외국기업의 참여기회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단순공사의 경우 자국기업에만 입찰기회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대규모 공사와 고도기술을 요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자본 및 기술력 부족으로 대부분 외국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표 3-4> 8대 경쟁국별 시장의존도 비교

(단위: %)

발주국	미국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집트	59.5	26.7	35.9	0.0	40.6	65.2	47.0	33.4
알제리	38.8	0.0	49.4	0.0	23.5	3.9	20.4	0.0
리비아	0.0	73.3	12.8	64.6	19.2	15.0	30.1	0.0

주: 1998~2002년 합계 기준.

자료: MEED지 각호.

2.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확대 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리비아는 장기간에 걸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일부 국책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많은 차질을 빚어왔다. 하지만 1999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기조와 경제제재 해제로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대규모 개발투자가 재개되고 있다. 리비아정부는 대수로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석유화학, 전력, 중소형 설비플랜트 등의 프로젝트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해외건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리비아는 대수로 건설공사 수주로 그동안 우리의 중요한 해외건설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 등 후발업체의 진출 강화로 입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해두면서 여기서는 본 연구의 범위내에서 리비아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진출 확대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기본적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진출기반 강화

1) 프로젝트 정보망 강화

수주활동 강화에 앞서 종합적인 시장조사기능 및 프로젝트 정보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모든 해외시장의 개척활동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리비아시장은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 발주의 예측 불가능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적시의 정확한 정보입수채널 구축은 수주 성공 여부와 직결될 수 있다. 시장조사활동은 현지시장의 건설제도나 관행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에서부터 주요 프로젝트의 발주계획 및 발주처의 주요 인사 파악 등에 이르기까지 수주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반정보의 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시장진출 준비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중요성을 띠고 있다.

리비아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요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관련 플랜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잠재성을 감안하여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정보

체계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주재관 파견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현지 유대관계 강화

시장개척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진출여건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 정부, 지역사회,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유대 및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사업수주 여부는 기술력이나 가격경쟁력과 같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유력인사에 의한 지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적으로는 건설외교 또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리비아시장을 확대해나가는 데 있어 유리한 입장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주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리비아는 정부관료의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경직된 관료주의, 위원회 형식의 독특한 조직운영원리 등 다른 국가와는 다른 시장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상대국과의 정기적인 교류채널 구축과 주요 발주처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사수주를 위한 건설외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업체가 그동안 리비아에서 많은 공사를 시공한 경험과 노하우도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지명도가 높은 현지업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정·재계 주요 인사와 친목교류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 합작수주 확대

1) 현지기업과의 합작진출

합작대상의 선택은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서 현지

기업과의 합작진출은 시장제약이나 국가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이용된다. 즉 현지업체의 장점을 역이용하여 현지건설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리비아 시장강화를 위해서는 현지건설시장 제도 및 관행 등 시장환경에 정통한 현지 적격업체 또는 현지정부기관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이들의 활동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지업체와의 합작진출은 무엇보다도 프로젝트 수주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발주정보, 인력 및 장비공급, 계약에 따른 행정절차 등 제반문제를 현지사정에 밝은 합작선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여타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영기업은 리비아 국가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석유·가스 등 에너지분야의 사업권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국영기업들을 합작대상으로 하는 것이 프로젝트 공사입찰 및 수주계약에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물론 리비아는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분야 진출시 국영기업과의 합작 또는 지분출자를 통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2) 합작(또는 컨소시엄) 진출

어떠한 조직형태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외건설업체가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전략적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기존 선진기업들과의 진출경쟁에 어려움이 크고 일반 개도국과는 다른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진출전략 모색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제3국과의 합작진출 또는 컨소시엄 구성 역시 우리 업체의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인데, 특히 합작대상이 선진국 업체일 경우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위험 발생시 선진국의 현지국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의 분산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선진국 업체와의 합작진출은 선진기술 및 사업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는 이점

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동반진출하는 전략모색도 필요하다. 국내업체간 합작진출은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발휘하거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담해서 수주할 수 있는 원천이 되며, 자금력의 대형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국내업체간 컨소시엄 형성이 우리 경제에 유리한 점은 현지에서 우리 업체간 과당 수주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수주 활동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 플랜트 수주 확대 및 금융조달능력 제고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최근 리비아에서도 플랜트 발주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개발에 따른 석유화학플랜트, 석유·가스처리시설, 담수화 및 발전시설 확충 등 플랜트 건설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진출전략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리비아는 원유나 가스 등 에너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단순시공보다는 플랜트 위주의 턴키공사(설계·구매·시공 즉 EPC 등)의 발주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발전소 건설, 석유화학시설 확충, 원유·가스처리시설 등의 플랜트부문은 건설규모도 크고 수익성도 높아 이 부문들에 대한 턴키공사 수주능력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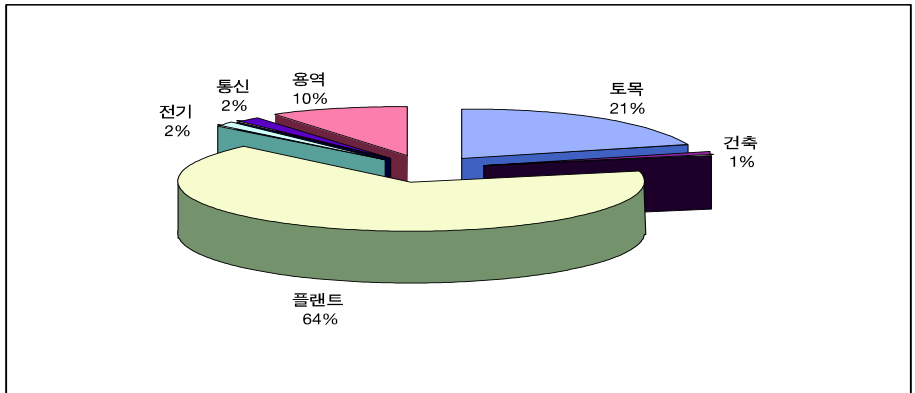
한국건설업체는 그동안 대수로공사나 도로 건설 등의 시공분야에 진출했는데 이제는 시공분야에서는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부문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토목이나 건설의 시공분야에서는 저임금을 기초로 한 중국과 터키, 이집트 등 인접 국가들의 진출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국기업은 중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부문인 설계,

타당성 조사 등 건설엔지니어링분야와 석유 및 가스개발과 관련된 플랜트 부문 진출에 주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림 3-3> 리비아의 공종별 발주비중

(단위: %)



주: 1998~2002년 합계 기준.

자료: MEED지 각호.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금융조달능력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고 있다. 리비아는 자체 재원이 크게 부족하여 프로젝트 수주조건으로 시공사 금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진출업체의 금융조달능력이 프로젝트 수주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유망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타당성 조사지원을 확대하고 공적개발 원조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과 공사발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동 기금을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문제는 세계 어느 시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리비아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앞에서 밝힌 방안들을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간 협력체제가 효율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이슬람식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반제국주의와 강경 반미노선을 불사하며 오랫동안 서방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온 가다피 정권이 최근 들어 친서방정책으로 급선회하는 등 전례 없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테러지원국가라는 오명 속에서 국제적으로 고립의 길을 걸어와야 했던 리비아가 미국의 요구를 전격 수용,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포기하는 등 화해무드를 조성함으로써 지난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다피 정권의 태도 변화는 한마디로 장기간에 걸친 국제사회의 경제봉쇄를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현실인식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따른 자신의 정권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에 기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장기간의 국제적 고립에서 겨우 빠져 나오는 단계에 불과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열쇠는 국제테러리즘을 완전히 청산함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그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길뿐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리비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경제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는 전적으로 가다피 정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는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다피 정권의 변화의 조짐은 개혁과 개방화로도 나타나고 있다. 서방국과의 관계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침체와 경제 전반의 낙후가 비단 경제제재 때문만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때문이라

는 내부적인 지적이 제기되면서 미약하나마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폐쇄사회에서 개방사회로의 변신 시도는 기본적으로 리비아가 그간 고수해온 완고한 경직성을 탈피하고 유연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특유의 폐쇄적인 정치체제하에서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화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눈여겨 관찰해야 할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는 과연 가다피 정권이 진정으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개혁추진방향이나 가다피의 의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리비아의 변화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처럼 리비아의 변화가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는 리비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잠재되어 있는 성장력을 어느 정도 현재화시켜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봉쇄되었던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상당 규모의 외자도입이 예상되고 있어 리비아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제재 해제 효과는 이미 리비아경제의 뚜렷한 회복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고유가기조에 따른 막대한 석유자본을 바탕으로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중단되었던 각종 개발프로젝트가 활발히 재개되고 있다.

리비아는 한국 건설기업이 지난 20여 년간에 걸쳐 250억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정도로 우리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향후 협력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순 건설공사의 경우 중국 등 후발업체의 진출 강화로 입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수로 공사 등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업체의 진출이 미진했던 고부가가치 플랜트부문으로의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리비아 건설시장 개척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진출여건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정부 및 발주처와의 밀접한 유대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朴英鎬. 2002.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방안』. 調査分析 0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04. 『리비아정부 주요발주기관 유력인사 초청설명회』.
- 朱東柱·元千植. 1998. 『中東禁輸國 問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이라크·리비아·이란경제』. 한국산업연구원(KIET).

[외국문자료]

- Arab Petroleum Research Center. 2002. *Arab Oil & Gas Directory: Libya*
- Alexander's Gas & Oil Connections. 2003. *Country Analysis: Libya*.
- African Energy. 각호.
- BBC News. 각호.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3.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Wider Europe-Neighbourhood: A new framework for relations with our eastern and southern neighbours*.
- EIU. 2003. *Country Profile: Libya*.
- _____. 2004. 5. *Country Report: Libya*.
- _____. Views Wire 각호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4. 1. *Country Analysis Briefs: Libya*.
- Financial Times*. 각호.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각호.
- IMF. 2003. "The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 *Consultation - Staff Report; Staff Statement; and Public Information Notice on the Executive Board Discussion*.

III. *Case studies in Sanctions and Terrorism.*

Libya Daily. 각호.

Mbendi. 2004a. *Libya: Oil and Gas Industry.*

_____. 2004b. *Libya: Oil and Gas Exploration & Production.*

Middle East Economic Digest(MEED). *The Middle East Business Weekly* 각호.

Maghreb Weekly Monitor. 각호.

Mustafa Bakar Mahmud and Alex Russell. 1999. 9. *An analysis of Libya's revenue per barrel from crude oil upstream activities.*

Rennack, Dianne E. & Robert D. Shuey. 1993. 11. 12. "Economic Sanctions to Achieve U.S. Foreign Policy Goals: Discussion and Guide to Current Laws." *CRS Report for Congress.* The Library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xford Analytica. 각호.

Ronald Bruce St John. Fall 2003. "Libya and the United States: Elements of a performance-based Roadmap." *Middle East Policy*, Vol. X, No. 3.

Stephen C. Calleya. 2000. "Is the Barcelona Process Working." *EU Policy in the Mediterranean Discussion Paper.*

The North Africa Journal. 각호.

UK Trade & Investment. 2004. *Oil, Gas & Petrochemical Market in Libya.*

U.S. Department of State. 2004. 4.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Executive Summary

Lifting Economic Sanctions on Libya and Its Implication to Korean Construction Firms

Young Ho Park

Libya had long been placed under economic sanctions by international society. Libya's support of international terrorism an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peace were the basic reasons behind the sanctions. The economy of Libya had been suffering from serious depression mainly due to the UN and US sanctions especially leaving the oil sector damaged. Libya's nominal GDP per head shrank from around 7,430 US dollar in 1992; the year UN sanctions were imposed, to an estimated 5,929 US dollar in 1999.

The recent ease of US sanctions against Libya following Gadhafi's decision to dismantle Liby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programs, which seems part of a long-standing effort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S combined with the removal of UN sanctions in 1999 foretell the end of the country's international isolation. This is expected to revive the economy with a rush of foreign oil companies to Libya and more open trade with US. Relations between Libya and Europe were effectively normalized following the suspension of UN sanctions in 1999, and links between Libya and US have started to improve at a rapid rate. In addition, Libya is moving toward strengthening global economic

ties after emerging from a long period of isolation even though the progress will be constrained by bureaucracy and policy reversals.

Libya has funds thanks to the recent high level of oil prices and its huge potential in oil and gas. Since the suspension of UN sanctions in 1999, participation by European oil firms has increased rapidly and with the rapid progress in Libya's relations with the US, US oil companies are now poised to return to Libya.

In the Korean viewpoint, Libya is an important cooperative economic partner, especially with respect to oil and construction. Libya, with the current increased oil price and the removal of economic sanctions, is reordering large-scale projects on oil and gas development and electricity power. This holds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Korean firms' to advance into high value-added plant sector. Moreover, Libya has been Korea's key market and Korea can utilize the constructing experience earned from Libya as a foothold into Northern Africa market.

KIEP 발간자료목록(2000~04. 8)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金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朴映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映坤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河由貞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吳東胤 · 林泓修
02-02	일본 수입축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金恩志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朴映坤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河由貞
02-05	인도의 정보기술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간 협력방안	崔允靜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裴嬉娟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權耿德
02-08	東아시아의 産業內貿易 增加 推移와 示唆点 - 韓 · 日의 對ASEAN 貿易을 중심으로	朴在旭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李哲元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崔義炫 · 趙錫軍 · 禹辰勳
03-03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權耿德
03-04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朴馥永 · 裴嬉娟
04-01	南亞共 恊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朴英鎬
04-02	EU 확대 이후 중 · 동구 지역의 교역 · 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哲元
04-03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朴英鎬

■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鄭銀淑
-------	--	-----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吳勇錫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元容杰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李榮洙 · 徐煥周
00-05	日·北 經濟協力の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申志鎬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朴濟勳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化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蔡熙律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張善德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金正湜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嚴久鎬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楊平燮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의 評價와 向後課題	金讚沆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金昌男 · 千寅鎬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高在模 · 全載旭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辛源龍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尹玄德
00-17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李殷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金泳世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朴繁洵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李忠烈
01-04	일본의 버블붕괴와 잃어버린 10년	姜應善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鄭基虎 · 李滿基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沈義燮 · 李光勛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尹澤東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李忠彦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程勳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金鍊鐵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gional Development	Chang Woon Nam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吳明錫
03-02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 결론: 대만경제에 대한 영향	趙顯竣 外

■ 정책연구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 · 蔡旭 · 金準東 · 宋有哲 · 尹美京 · 徐暢培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金準東 · 姜仁洙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鄭余泉
00-04	WTO 뉴라운드 工産品協商의 시나리오별 實證分析和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李明憲·朱文培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金準東·李長榮·李漢煥·金龍奎·崔重熹·許 琮·李漳源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鄭仁教·李景姬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蔡 旭·金準東·梁俊哲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趙明哲·權 栗·李哲元·金恩志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주요 쟁점연구	金世植·楊斗鏞·王允鍾·黃祥仁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尹昌仁 外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趙明哲·洪翼杓
00-13	WTO 뉴라운드協商의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蔡 旭·崔洛均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尹昌仁·韓宅換·庾相喜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李鍾華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宋有哲·朴芝賢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부문의 변화	南相烈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黃祥仁·金寅培·辛仁錫
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金尙謙·朴仁元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曹琮和·金于珍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梁俊哲·金鴻律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尹德龍·朴淳讚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李鍾華·朴淳讚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宋有哲 外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外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崔洛均 外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蔡 旭·徐暢培

02-01	DDA 총점검-2002	崔洛均 外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宋有哲 · 朴芝賢 · 李載玉 · 林頌洙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 · 시청각 ·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 高俊誠 · 具文謨 · 朴淳讚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崔洛均 · 鄭在皓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姜文盛 · 魯在峯 · 李鍾華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尹美京 · 崔允僖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南相烈 · 權栗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崔洛均 · 朴淳讚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姜三模 · 王允鍾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姜文盛 · 羅秀燁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尹德龍 · 鄭在植 · 曹琮和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李彰洙
02-13	한 · 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金良姬 · 趙炳澤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池晚洙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 · 교역구조 분석	權栗 · 金玠慶
02-16	중국 유통산업 개방과 활용전략	趙顯竣
02-17	1990년대 이후 한 · 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梁俊哲 · 金鴻律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尹德龍 · 鄭衡坤 · 南英淑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金興鍾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李昌在
02-21	韓 · 中 · 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洪裕洙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金鴻律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白權鎬 外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朴大權 · 楊斗鏞 · 吳奎澤 · 金恩京
02-25	한 · 중 · 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李鴻培 · 岡本 信廣
02-26	북한경제 백서	趙明哲 外
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 · 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申寬浩 · 王允鍾 · 李鍾和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姜三模 · 朱尙榮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洪裕洙 · 李彰洙 · 姜丁實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安炯徒 外
03-05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地晚洙·李榮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洪裕洙·池晚洙·韓正和
03-07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과급영향	鄭仁教·吳東胤
03-08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權栗·鄭仁教·朴仁元
03-09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李鴻培·金良姬·金恩志·程勳
03-10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曹琮和·李炯根
03-1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姜文盛·金元鎬·朴淳讚·全鍾奎·權奇洙·金眞梧·羅秀燁
03-1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安炯徒·尹德龍
03-13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趙明哲 外
03-14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趙明哲 外
03-15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趙明哲
03-16	DDA 중간점검 - 2003	崔洛均 外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宋有哲 外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金準東·鄭永虎·崔秉浩·安德宣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崔洛均·鄭在皓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姜文盛·朴淳讚·李彰洙
03-21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尹美京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金準東·金鍾一·姜俊求
03-2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鄭仁教 外
03-24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姜文盛·朴淳讚·宋有哲·尹美京·李根
03-25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楊斗鏞 外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申寬浩·楊斗鏞·王允鍾·李鍾和
03-27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鄭仁教 外

■ 지역연구

03-01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

	–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코를 중심으로	金興鍾 · 金良姬 · 朴英鎬
03-02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金興鍾 · 李哲元 · 朴映坤 · 朴慶錫
03-03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李章揆 · 趙顯垓 · 吳東胤
03-04	메콩강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鄭在完 · 權耿德
04-01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朴馥永

■ 조사분석

00-01	투명성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朴映坤 · 金于珍 · 羅秀燁
00-02	주요 이슈별 韓 · 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梁俊哲 · 金鴻律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金元鎬 · 姜文盛 · 羅秀燁 · 金眞梧
00-05	國際協力體 設립을 통한 北韓開發 支援방안	張亨壽 · 朴映坤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鄭在完
01-02	아프리카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수출확대 방안	朴英鎬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孫讚鉉 · 尹眞那
01-04	WTO 農業協商 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宋有哲 · 朴芝賢
01-05	韓 · 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金良姬 · 金鍾杰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鄭余泉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權奇洙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權 栗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金眞梧
01-10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李哲元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 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尹美京 · 李性美
01-12	北韓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南北 협력방안	趙明哲
01-13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洪翼杓
02-01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姜文盛 · 羅秀燁
02-02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정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 방안	朴英鎬
02-03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宋有哲
02-04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尹美京 · 李奎億
02-05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덴마크 · 영국 · 스웨덴 ·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朴映坤 · 尹錫明

朴英鎬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과정

아프리카경제연구회 간사(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Parkyh@kiep.go.kr)

著書 및 論文

『아프리카 시장특성분석 및 한국의 수출확대 방안』 (2001)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 방안』 (2002)

『南阿共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2004) 외

지역리포트 04-03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2004년 10월 5일 인쇄

2004년 10월 10일 발행

발행인 安忠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6071-0 94320

정가 5,000원

89-322-6017-6 (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2천원		1만원
B	(월간)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02)3460-1179 FAX:02)3460-1144
 E-mail: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B)발간자료, 週報(인쇄물), 전문가폴 토의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유효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Lifting Economic Sanctions on Libya and Its Implication to Korean Construction Firms

Young Ho Park

리비아는 장기간에 걸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말미암아 경제회복 또는 재건의 기회를 상실한 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유엔의 제재 해제에 이어 미국의 경제제재도 가다피 정권의 전격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포기선언의 대가로 상당 부분 해제됨으로써 리비아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제재 해제의 효과는 이미 리비아경제의 뚜렷한 회복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국제유가 상승기조를 바탕으로 그동안 자원부족 때문에 중단되었던 각종 개발프로젝트가 활발히 재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리비아 경제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 리비아에 관한 한 한국 기업의 1차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건설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영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정가 5,000원